“2000년 가야불교, ‘孝’ 정신의 뿌리”

가야문화진흥원, 제2회 가야효문화축제

다양한 축제 내용, 알찬 기획
어른 및 아이, 전 세대 아울러
가야 문화 재고찰 및 선양해
“가야史 복원은 사명이자 의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은 10월 7일 가야대학교 체육관에서 ‘제2회 가야효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가야불교의 정신뿌리는 ‘효’라고 강조했다.

어르신을 모시고 나온 가족들이 함박웃음을 짓는다. 불자들은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공양을 지어 올렸고, 흥겨운 노래가 이어지는 무대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찾은 참가자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200여 청소년들은 ‘가야’와 ‘효’ 주제로 글을 지으며 2000년 가야왕도에 흐르는 효 정신을 되새겼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인해 · 이하 가야문화진흥원)은 10월 7일 가야대 체육관에서 ‘제2회 가야효문화축제’를 개최했다.

가야문화진흥원은 축제를 통해 가야 역사의 정체성을 재 고찰하며 가야문화의 정신 뿌리가 ‘효’임을 강조했다. 김해에는 부원암, 모은암 같은 효 관련 사찰이 특히 많다.

행사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국악경연대회 및 백일장’으로 문을 열었으며, 김해 시민과 어르신을 위한 무차만발공연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사장 인해 스님과 부이사장 해공 스님,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 회장 혜진 스님, 이사 도명 · 덕암 · 송산 스님을 비롯해 김형수 김해시의회 의장, 김정호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했다.

개회식에서 이사장 인해 스님은 “가야인의 후예로서 가야인의 정신과 문화와 역사를 복원 하는 것은 사명이요, 의무”라며 “모든 이가 참여 동참해 가야 역사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재차 당부했다.

이번 축제는 태풍 콩레이로 인해 당시 계획했던 3일간의 일정이 축소됐지만 다채로운 행사를 모두 담아 알차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축제에서는 국악인 김준호와 손심심의 효 콘서트와 가야사를 알리는 무용극 · 인도춤극 · 창극 · 인형극 등 ‘극(劇)페스티벌’, 국립오페라합창단 공연이 진행됐다. 또 〈금강경〉 독송과 가야문화 중흥을 발원하는 108배 정진도 이어졌다. 끝으로 ‘가야’를 주제로 법륜스님의 즉문즉설도 이어졌다.

법륜 스님은 “김수로 왕릉에 있는 두 마리 물고기 문양이 인도 ‘아유타국’, 즉 현재 인도 북부의 갠지스 강 중류 연변에 있는 도시 ‘아요디아’에서 똑같이 발견된다”며 “그 외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야전통문화를 모두가 함께 발굴 정리하고 사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야문화진흥원의 ‘효’정신 강조는 체험 부스에서도 드러났다. 가야문화진흥원은 〈부모은중경〉을 2000부 제작해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또 서각의 대가로 불리는 성주 청매암 정도 스님이 직접 체험부스에서 봉사했다.

참가자들은 “흥겨운 무대도 좋았지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고 더 사랑하게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미영(34 · 김해)씨는 “태풍이 지난 간 후 좋은 날씨에 가벼운 걸음으로 가족들과 동참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김해에 대한 설명이 좋았다”며 “돌 하나 마을 이름 하나가 예사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지은(45 · 김해)씨는 “부모은중경을 읽어보았는데 마음이 뭉클하다”며 “오늘 이렇게 행사 열어주신 스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야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사장 인해 스님은 “행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알리는데 있다”며 “살아있는 가야불교의 정신을 잇고 2000년 한국불교의 역사현장으로 중요성에 공감하고 가야사 복원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곧은 수행자 모습 기립니다”

송광사 효봉 스님 추모법회 봉행

절구통 수좌로 수행 정진
200여 대중 모여 추모
청정 수행 가풍 다짐해

조계종 통합종단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 스님(1888~1966) 열반 52주기 추모법회가 순천 송광사(주지 진화)에서 봉행됐다.

효봉 스님은 구산, 법정, 보성 스님의 은사이자 한국불교의 청정수행 기틀을 다진 스님이다. 효봉 스님 추모법회에는 법흥 스님, 도성 스님(태종사), 현호 스님 등 조계종 제21교구 본말사 스님과 문도 스님, 불자 등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추모법회서는 불교의례, 대중삼배, 헌향, 헌공, 헌다, 추모사 등이 진행됐다.



영전에 삼배하는 송광사 스님들.

도성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효봉 스님과의 일화를 소개한 후 “늘 청정하고 올곧은 수행자의 모습을 후학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회상했다.

주지 진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큰 스님이 계셨기에 오늘날 조계총림 송광사가 있었다.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수행도량을 잘 가꾸어서, 후학들이 이 도량에서 큰 도(道)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법련사 불일합창단은 찬불가로 ‘효봉스님 가신 날’을 불러 스님을 추모했다.

한편 효봉 스님은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나와 조선인 최초로 판사가 되었으나, 평양 복심법원에 근무하다 사형선고 내린 것에 회의를 품고 38세 늦깎이로 금강산 신계사 보문암에서 석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엉덩이 살이 헐고 진물이 나 방석과 들러붙을 정도로 무섭게 정진하여 ‘절구통 수좌’라 불리기도 했다. 스님은 이후 제방 선원에서 정진한 후 통영 용화사, 쌍계사, 송광사 조실, 해인사 방장 등을 역임한 후 1957년 조계종 총무원장과 통합종단 초대 종정에 추대되었다. 이후 1966년 밀양 표충사에서 ‘내가 말한 모든 법은, 그거 다 군더더기, 오늘 일을 묻는가, 달이 천강에 비치니라’라는 임종게를 남기고 열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세계 차의 향연 열린다

10월 22일~25일, 제12회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

세계 선차 문화의 장이 열린다.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최석환)는 ‘제12회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를 10월 22~25일 서울과 부산 일대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6시 서울 전등사에서의 다인 100인 초대 찻자리로 이어진다. 또 10월 23일에는 영등포아트홀에서 세계 5개국 12개 팀이 참여하는 선차공연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한중일 다례 시연이 진행된다.

폐막식은 10월 24일 부산 홍법사에서 열린다. 폐막식은 한국국제선차문화연구회와 한맥인터코리아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사)한나래문화재단이 주관한다. 폐막행사에서는 △칠완다가 △다담선 △사찰음식 공양 △한 · 중 · 일 선차공연 △천인백가 두리차회 등이 진행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북 영산작법 대중에 선보이다

전주무형문화재 주간맞아 한옥마을에서 시연회 개최



전북영산작법 보존회 회원들이 작법을 시연하고 있다.

불교전통문화예술인 영산작법을 일반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시연회가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렸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8호 전북영산작법보존회(회장 혜정, 동고사 주지)가 영산작법 시연회를 개최했다.

전주시 무형문화재주간을 맞아 10월 8일 전주 한옥마을 소리문화관에서 열린 이날 시연회는 ‘나의 전설, 우리의 전설’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시연회에는 회장 혜정 스님, 부회장 혜안 스님(익산 태봉사), 교육원장 지산 스님을 비롯한 20여명의 전수자와 이수자 스님들이 동참해 불교의 전통예술인 영산작법을 선보였다.

이날 시연회는 불교의 전통의식에 따라 신중작법, 복청게, 천수바라, 헌좌게, 다게작법, 기성가지, 사홍서원 순으로 정중하면서도 엄숙하게 진행돼 수많은 관람객들의 갈채를 받았다.

연, 일로왕번을 비롯한 각종 번들이 행사장을 장엄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시연회에는 불교의 전통 소리인 어산과 작법이라 불리는 착복과 함께 태징, 요령, 목탁, 소북, 해납, 나각, 나팔, 박 등의 악기들이 어우러져 엄숙하고 장중한 영산회상을 재연했다.

전라북도의 유일한 불교무형문화재인 영산작법보존회의 공연은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혜정 스님은 “한옥마을에서 전주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고유의 불교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통의 맥을 이어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해남사, 금강경으로 ‘원(願)’의 참 뜻 찾아

10월 25일, 금강경 독송 21일 정진대법회

울산 해남사가 ‘포교’, ‘교육’, ‘수행’ 3가지 기틀을 굳건히 세우는 정진대법회를 개최한다. 해남사(주지 혜원)는 ‘원(願) 성취를 위한 금강경 독송 21일 정진대법회’를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해남사에서 봉행한다. 경전을 통한 교육과 기도 수행 그리고 성숙한 불자로 함께 성장하는 도량, 오직 정진하는 불자들의 요람으로 출발을 알리는 법회이다.

새롭게 기도법회를 열게 된 것은 주지 혜원 스님이 지난 9월 새롭게 취임하면서 해남사의 비전을 ‘포교’, ‘교육’, ‘수행’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혜원 스님은 “해남사는 통도사에서 세운 첫 포교당으로 창건 이념이 포교”라며 “해남사는 일제강점기에 훼손당한 민족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건립됐다. 무명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밝혀 나가는 것이 해남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진법회 기간 기도는 새벽 5시~6시, 오전 8시~12시, 오후 2시~6시 총 3번으로 나눠 진행되며 하루 21번 〈금강경〉을 독송하고 ‘원(願)’의 참된 의미를 찾는 시간이 이어진다. 입재식은 10월 25일 오전 11시이다.

주지 혜원 스님은 “마음의 여러 소원을 내려놓고 〈금강경〉을 독송하며 자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함께 동참해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2)211-3340

울산=하성미 기자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九龍, 금룡의 소원...
■ 사찰의 모든 장소 장식 가능
■ 용왕단 조성 및 연못 - 분수기능
■ 소원성취단(소원지.소원패등)
■ 소장사찰 : 여수향일암 강화보문사등

기획불사상담문의
승원아트조형 010-9195-1044

